
		<b>보 도 자 료</b>		수도권매립지 종료		
		배포일자 2022년 4월 18일(월) 총 3매				
담당부서	문화콘텐츠과	담당자	• 콘텐츠정책팀장 송은주 ☎440-3991 • 담당자 정정도 ☎440-3992			
사진(이미지)	<input type="checkbox"/> 없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있음		참고자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없음 <input type="checkbox"/> 있음		
보 도 시 점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문화의 자긍심, 애관극장 지키기 위해 협력**  
**- 18일,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인천시, 인천영상위원회, 시민단체, 애관극장 ... 애관극장 보존과 활용위한 의지 다져 -**

인천광역시 18일 시청 대접견실에서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1895년 개관한 인천 애관극장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공연장으로 알려져 있다. 애관극장은 개항기 이후부터 인천의 연극·공연·영화 등 문화 활동의 중심지였다. 그러나 멀티플렉스 상영관들이 등장하면서 인천의 많은 극장들이 하나 둘 사라지고 이제는 애관극장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실정이다.

인천시는 그동안 애관극장 활용방안 모색을 위해 민간협의체를 구성·운영해왔고, 연구용역 실시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애관극장을 사랑하는 시민모임)와도 협력을 지속해왔다.

인천광역시, 인천영상위원회, 시민단체, 애관극장 4개 기관(단체)간 상호협력방안을 담은 협약서에는 인천시, 나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애관극장을 영상 문화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보존·활용하

기 위한 의지를 담아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인천시는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에 필요한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고, 인천영상위원회는 애관극장이 영화영상 문화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시민사회는 시민모금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애관극장은 극장보존 및 활용을 위한 민·관의 다양한 사업에 적극 협조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서 박남춘 시장은 “최근 단관극장이 점차 사라지고 애관극장 또한 운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애관극장의 새로운 미래를 위해서는 행정, 시민사회 등 주체별로 각각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문화적 자긍심과 상징성을 지닌 애관극장을 보존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미래세대에게 전해주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지혜와 협력이 필요하며 오늘 협약을 통해 애관극장이 보다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25일(월) 주안 특문화창작지대 인천 영상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영상관련 전문가, 시민 등이 함께 인천 영상문화산업 발전방향, 거점시설로서의 지역문화유산(애관극장) 활용방안 등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예정이다. 또한 시민사회 등과 협력·소통을 통해 애관극장 보존 및 활용을 위한 공감의 자리가 될 전망이다.

※ 관련 사진은 행사(11시) 종료 후 인천시 홈페이지 '인천시 인터넷방송'(<http://tv.incheon.go.kr/>) '포토인천'에 게시될 예정입니다.